

## 응급구조학과 학생들의 진로선택유형에 따른 진로장애요인과 진로정체감

박정미<sup>1</sup> · 한송이<sup>2\*</sup>

<sup>1</sup>영남이공대학교 간호학과

<sup>2</sup>백석대학교 응급구조학과

## Career obstacle factors and career identity according to career choice type among paramedic students

Jeong-Mi Park<sup>1</sup> · Song-Yi Han<sup>2\*</sup>

<sup>1</sup>Department of Nursing, Yeungnam University College

<sup>2</sup>Department of Emergency Medical Service, Baekseok University

### =Abstract =

**Purpose:** The purpose of the study was to examine the career obstacle factors and career identity according to career choice type among paramedic students.

**Methods:** A self-reported questionnaire was completed by 234 paramedic students in C area from August 25 to September 3, 2015. The questionnaire consisted of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career obstacle factors, career identity, and types of career choice. The data were analyzed by t test, ANOVA, post hoc Scheffé test, Pearson's correlation analysi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using SPSS v. 20.0.

**Results:** Career obstacle factors and career identity of paramedic students had significant differences on motivation of university choice, major satisfaction, and job preference. A stable type of career choice showed a significantly lower score for career obstacle factors and a higher score for career identity. Career identity had a strongly positive relationship with major satisfaction and had a negative relationship with career obstacle factors.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revealed that the main variables affecting career identity were types of career choice, motivation of university choice, major satisfaction, and career obstacle factors. The explanatory power was 58.0%.

Received November 8, 2016    Revised December 7, 2016    Accepted December 19, 2016

\*Correspondence to Song-Yi Han

Department of Emergency Medical Service, Baekseok University, 76, Munam-ro, Dongnam-gu, Cheonan-si, Chungcheongnam-do, 31065, Republic of Korea

Tel: +82-41-550-2827    Fax: +82-41-550-2829    E-mail: syhansy@hanmail.net

**Conclusion:** The development of a career integrity enhancement program can solve the career obstacle factors for paramedic students.

**Keywords:** Paramedic students, Types of career choice, Career obstacle factor, Career identity

## I. 서 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최근 청년 실업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며 성공적인 취업에 대한 수요가 증대되고 있으며 직업이 한 개인의 삶의 본질을 결정하고 삶의 내용과 가치 수준을 결정하고 자아실현과 행복한 삶의 영위하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1]. 직업선택은 자신의 성향이나 가치관에 대한 고민보다는 업무조건이나 보수, 주변의 선호도 등으로 선택하게 되어 많은 학생들이 졸업 후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과 주변의 여러 상황들이 일치하지 않게 되면 진로를 결정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2].

대학생은 최초로 구체적인 미래의 진로를 선택하기 위하여 준비를 하는 시기이다[2]. 진로를 선택한다는 것은 자신의 자기개념을 반영할 수 있는 흥미와 능력에 맞는 길을 찾는 과정이지만 취업의 문턱이 낮은 보건계열을 선택하는 대학생들조차 진로와 직업에 대한 충분한 탐색과 적절한 진로준비를 위한 노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전공분야를 선택하게 되어 대학 입학 후 전공 부적응을 비롯한 취업과 진로문제로 고민하게 된다[3]. 특히 응급구조학과 학생들은 과중한 학습뿐 아니라 임상실습에 임해야 하므로 환자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과 지식 및 경험부족, 엄격한 행동 규범 등과 관련된 역할적응에 어려움을 겪는다[4].

진로정체감이란 진로에 대한 자신의 신념 정도를 말하며 직업에 대한 목표, 관심 및 소질에 대한 명확하고 안정된 모습을 갖는 것이다[5]. 뚜렷하지 못한 진로정체감은 전공과 직업에 대한 부적응을 일으킨다[6]. 응급구조학에 관하여 막연한 이미지만을 가지고 있거나 불안정한 진로선택 유형은 진

로정체감 형성과 직업만족도를 하락에도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가져온 연구결과[2, 7, 8]들을 볼 때 진로선택요인이 진로정체감에 영향을 주는 한 요인이다.

진로장애 요인은 개인의 진로 발달을 어렵게 만드는 개인 내적이거나 환경적인 사건이나 조건이다[9]. 진로 장애는 대학생이 자신의 진로에 몰입하거나 적응하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는 대학생들의 대학 적응에도 직간접으로 영향으로 [10] 진로를 개척을 위한 노력을 어렵게 하고 진로정체감에 영향을 준다.

진로선택요인과 진로장애요인이 진로정체감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결과들을 살펴보면, 진로결정장애를 덜 지각할수록 진로정체감이 높아진다 [11]. 안정적 진로선택유형과 관습적 진로선택유형이 불안정적 진로선택유형과 중다선택 진로선택유형보다 높은 진로정체감 수준을 갖는다[2]. 간호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12]에서 안정적 진로선택유형이 진로정체감이 가장 높고 불안정적 진로선택유형에서 진로정체감이 가장 낮았으며 중다선택과 관습적 유형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응급구조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극히 제한적인 자료가 제시되어 있는데 진로에 대한 인식이 높을수록 취업자신감이 높았고[1],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대학생활에 적응을 잘하고 있었으나[13] 학생들의 진로정체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는 아직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응급구조학과 학생들도 자신의 진로가 점점 다양해지고 있어서 진로선택유형에 따른 학생 진로지도 상담방향을 설정하고 진로선택요인과 준비행동에 따른 진로정체감을 파악하는 것은 응급구조학과 학생 개개인에게 맞는 취업진로를 지도하기 위한 의미 있는 자료로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

## II. 연구방법

###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응급구조학과 학생들의 진로 선택 유형과 진로장애요인에 따른 진로정체감을 파악하고, 진로정체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 2. 연구 대상

대상자는 현재 C지역에 재학 중인 4년제 응급구조학과 학생으로 자료 수집은 각 학교에 설문지의 취지를 설명하고 동의를 구한 후 작성된 설문지를 직접 배부하였으며 동의를 한 학생에 한하여 설문을 진행하였다. 자료수집기간은 2015년 8월 25일부터 9월 3일까지로 총 10일간 진행하였다. 설문에 참여한 대상자는 C지역에 재학 중인 1~4학년 학생 총 234명의 설문지를 수거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 3. 연구 도구

#### 1) 진로선택유형

Gianakos[7]가 구분한 진로선택 방법에 근거하여, Lee[8]의 진로선택유형 분류 방법을 사용하였다. 세 개의 요인을 측정하여 진로선택유형을 구분하였는데, 요인 1은 고등학교 시절 고려했던 대학의 전공, 요인 2는 실제 대학 입학 시 선택한 전공, 요인 3은 다시 전공을 선택할 기회가 주어진다 면 선택할 전공이다. 여기에는 안정적, 중다선택, 관습적 그리고 불안정적 진로선택유형으로 분류된다. 안정적 진로선택유형은 요인 1, 요인 2, 요인 3이 완전히 일관성을 보일 때이며, 중다선택 진로선택유형은 요인 1과 요인 2는 같지만, 요인 3이 다른 유형일 때, 관습적 진로선택유형은 요인 2가 요인 1과는 다르지만 요인 3과는 일치하는 유형을

말하며, 불안정적 진로선택유형은 세 개 요인 모두가 불일치할 때를 말한다.

#### 2) 진로장애요인

진로장애요인은 Kim[14]이 개발한 진로탐색장애 도구를 이용하였다. 본 척도는 4점 척도로 평가하게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신이 느끼는 장애요인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항목으로는 대인관계의 어려움, 자기명확성 부족, 경제적 어려움, 중요한 타인과의 갈등, 직업적 정보부족, 나이문제, 신체적 열등감, 흥미부족과 미래불안 항목으로 구성되었다. 본 도구의 Cronbach's  $\alpha = .77$ 이었다.

#### 3) 진로정체감

Holland 등[15]이 개발한 진로상황검사(My Vocational Situation, MVS)의 하위척도인 정체감 척도 18문항을 Kim[16]이 한국 상황에 맞게 번안하고, Kwon[17]가 한국 간호대학생에 맞게 14문항으로 수정·보완하여 사용한 도구로 총 14문항이다. 4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는 역환산하여 계산하였다(1점-매우 그렇다, 4점-전혀 그렇지 않다). 측정된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정체감이 높은 것임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Kim[16]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 .89$ , Kwon[17]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 .88$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 .86$ 이었다.

### 4.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20.0 program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각 항목의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진로장애요인과 진로정체감과 진로선택유형별 진로장애요인과 진로정체감은 t-test 와 ANOVA로 평균비교를 하였으며, 사후검정은 Scheffé로 하였다. 일반적 특성과 진로장애요인, 진로정체감과의 상관관계는 Pearson 상관계수를 구하였으며, 진로장애요인과 학과만족도

가 진로정체감에 미치는 영향은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 Ⅲ. 연구결과

####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남

자 47.0%(110명), 여자 53.0%(124명)이었으며, 1학년 26.5%(62명), 2, 3학년은 각각 25.6%(60명), 4학년 22.2%(52명)로 골고루 분포되었으며, 진학 동기로는 적성과 흥미가 56.8%(133명)로 가장 높았다. 성적은 중인 경우 67.9%(159명)였으며, 전공만족도는 만족한다가 73.9%(173명)로 가장 많았다. 임상실습경험이 없는 경우가 52.1%(122명), 있는 경우가 47.9%(112명)이었으며, 희망진로는 산업체 44.9%(105명), 소방공무원 41.5%(97명) 순이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amedic students (N=234)

Variable	Category	n	%
Sex	Male	110	47.0
	Female	124	53.0
Grade	1 <sup>st</sup> year	62	26.5
	2 <sup>nd</sup> year	60	25.6
	3 <sup>rd</sup> year	60	25.6
	4 <sup>th</sup> year	52	22.2
Motivation of university choice	According to high school grade	33	14.1
	Advice of parents	24	10.3
	Employment rate	12	5.1
	Aptitude and interest	133	56.8
	Specialized job	19	8.1
Achieving score	Others	13	5.6
	Good	45	19.2
	Fair	159	67.9
Major satisfaction	Poor	29	12.4
	Dissatisfaction	13	5.6
Clinical experience	Usual	48	20.5
	Satisfaction	173	73.9
Job preference	Yes	112	47.9
	No	122	52.1
Economic level	Firefighter	97	41.5
	Medical institution	16	6.8
	Related industry	105	44.9
	Others	16	6.8
Physical condition	Low	35	15.0
	Intermediate	133	56.8
	High	66	28.2
Personal relationship	Poor	5	2.1
	Usual	28	12.0
Personal relationship	Good	201	85.9
	Poor	4	1.7
Personal relationship	usual	53	22.6
	Good	177	75.6

었다. 경제수준은 중으로 답한 경우가 56.8%(133명)였고 건강상태도 좋다가 85.9%(201명), 대인관계가 좋다가 75.6%(177명)로 답하여 응급구조학과 학생들은 대부분 건강하고 대인관계가 좋았다.

## 2. 일반적 특성별 진로장애요인과 진로 정체감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별 진로장애요인은 <Table 2>와 같다. 일반적 특성에서 진로장애요인에 영향을 주는 변수들은 성별( $p=.011$ ), 진학동기에 영향을 주는 변수들은 성별( $p=.011$ ), 진학동기( $p=.044$ ), 전공만족도( $p=.003$ ), 희망진로

Table 2. Career obstacle factors and career identity by general characteristics (N=234)

Variable	Category	Career obstacle factors			Career identity		
		M±SD	t/F	P (Scheffé)	M±SD	t/F	P (Scheffé)
Sex	Male	1.88±.495	-2.576	.011	2.86±.460	.191	.848
	Female	2.04±.448			2.84±.491		
Grade	1 <sup>st</sup> year <sup>a</sup>	1.91±.415	.755	.520	3.02±.429	4.774	.003 (a>c)
	2 <sup>nd</sup> year <sup>b</sup>	2.02±.481			2.81±.494		
	3 <sup>rd</sup> year <sup>c</sup>	2.00±.513			2.71±.528		
	4 <sup>th</sup> year <sup>d</sup>	1.92±.498			2.84±.387		
Motivation of university choice	According to high school grade <sup>a</sup>	1.99±.439	2.327	.044	2.61±.426	9.746	.000 (a,b,c<d)
	Advice of parents <sup>b</sup>	2.20±.453			2.54±.500		
	Employment rate <sup>c</sup>	1.89±.567			2.57±.609		
	Aptitude and interest <sup>d</sup>	1.90±.451			3.01±.415		
	Specialized job <sup>e</sup>	2.14±.549			2.66±.393		
	Others <sup>f</sup>	1.91±.546			2.92±.440		
Achieving score	Good <sup>a</sup>	1.97±.509	.375	.688	2.79±.423	3.098	.047
	Fair <sup>b</sup>	1.95±.459			2.90±.476		
	Poor <sup>c</sup>	2.03±.533			2.68±.518		
Major satisfaction	Dissatisfaction <sup>a</sup>	2.24±.695	5.913	.003 (a,b>c)	2.24±.691	30.286	.000 (a<b, a<c)
	Usual <sup>b</sup>	2.11±.425			2.58±.354		
	Satisfaction <sup>c</sup>	1.90±.457			2.97±.419		
Clinical experience	Yes	1.96±.505	-.140	.888	2.77±.471	-2.361	.019
	No	1.97±.450			2.92±.472		
Job preference	Firefighter <sup>a</sup>	1.96±.507	2.702	.046	2.90±.505	4.289	.006 (a>b, c>b)
	Medical institution <sup>b</sup>	2.25±.477			2.46±.457		
	Related industry <sup>c</sup>	1.95±.427			2.88±.414		
	Others <sup>d</sup>	1.80±.518			2.78±.552		
Economic level	Low	2.02±.446	2.508	.084	2.87±.461	.164	.849
	Intermediate	1.98±.483			2.83±.043		
	High	1.81±.476			2.86±.443		
Physical condition	Poor	2.60±.553	6.806	.001 (a>c)	2.37±.427	3.031	.050
	Usual	2.12±.391			2.78±.418		
	Good	1.93±.472			2.87±.480		
Personal relationship	Poor	2.15±.502	3.799	.024	2.59±.332	2.106	.124
	usual	2.11±.477			2.75±.413		
	Good	1.92±.468			2.88±.492		

( $p=.046$ ), 건강상태( $p=.001$ )와 대인관계( $p=.024$ ) 요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나 ( $p<.05$ ) 학년과 취득학점, 임상실습유무와 경제적 상태는 영향이 없었다.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이 진로장애요인 점수가 높았고, 진학동기에서는 부모의 권유로 학과를 선택한 경우에 진로장애요인 점수가 가장 높았다. 또한 취업률과 적성에 따라 선택한 경우에 진로장애요인 점수가 가장 낮았으나 각 군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전공만족도에서는 전공만족도가 높은 학생들이 전공에 대한 만족도가 보통이거나 낮은 학생들보다 진로장애요인 점수가 낮게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취업희망분야가 병원인 경우에 진로장애요인 점수가 높게 나타났으며, 신체적 건강상태가 좋은 경우와 대인관계가 좋은 경우에 진로장애요인 점수는 낮았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진로정체감은 <Table 2>에 있으며, 학년( $p=.003$ ), 진학동기( $p<.001$ ), 학점( $p=.047$ ), 전공만족도( $p<.001$ ), 임상실습경험( $p=.019$ )과 희망진로( $p=.006$ )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나( $p<.05$ ) 성별, 경제수준, 건강상태, 대인관계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별 진로정체감은 1학년에 3학년에 비해 높게 나타났고, 진학 동기는 적성과 흥미에 의해 진학한 경우가 성적이나 부모님 권유, 취업률을 고

려해 진학한 경우보다 진로정체감이 높게 나타났 다( $p<.001$ ). 전공만족도는 전공에 대해 만족한 경우가 진로정체감이 가장 높았고( $p<.001$ ), 임상실 습은 하지 않은 경우( $p=.019$ )와 희망진로가 의료 기관을 희망하는 경우보다 소방공무원과 산업체를 희망하는 경우에 진로정체감이 더 높았다 ( $p=.006$ ).

### 3. 대상자의 진로선택유형에 따른 진로 장애요인과 진로정체감

대상자의 진로선택유형에 따른 진로장애요인과 진로정체감은 <Table 3>과 같다. 대상자의 진로선택유형은 불안정적 유형이 35.5%(83명), 관습적 유형 31.6%(74명), 안정적 유형 29.1%(68명) 순이었으며, 중다선택 유형은 3.8%(9명)이었다. 진로 선택유형에 따른 진로장애요인( $p=.027$ )과 진로정체감( $p<.001$ )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 $p<.05$ ).

진로장애요인 점수가 가장 높은 군은 불안정적 진로선택유형이었으며(2.05점), 가장 점수가 낮은 군은 안정적 진로선택유형(1.82점)으로 두 군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p=.027$ ). 또한 진로정체감 점수가 가장 높은 군은 안정적 진로선택유형(3.10점)이었으며, 중다 선택 진로선택유형, 관습적 진로선택유형과 불안정적 진로선택유형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p<.001$ ).

Table 3. Career obstacle factors and career identity by types of career choice (N=234)

Variable	Stable type(n=68)	Multiple trial type(n=9)	Conventional type(n=74)	Unstable type(n=83)	F(p)	Scheffé
	M±SD	M±SD	M±SD	M±SD		
Career obstacle factors	1.82±.449	1.96±.650	2.00±.486	2.05±.451	3.110(.027)	a<d
Career identity	3.10±.463	2.57±.427	2.68±.494	2.85±.476	12.494(.000)	a>b,c,d

#### 4. 일반적 특성, 진로장애요인과 진로정체감과의 상관관계

일반적 특성, 진로장애요인과 진로정체감과의 상관관계는 <Table 4>와 같다. 진로정체감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변수들로는 전공만족도( $r=-.570, p<.001$ )와 진로장애요인( $r=-.670, p<.001$ )으로 중등도의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학년( $r=-.160, p=.014$ )은 약한 음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진로정체감은 저학년일수록, 전공만족도가 높을수록, 전공만족도가 높을수록 진로장애요인은 낮았다.

진로장애요인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은 전공만족도( $r=-.320, p<.001$ )로 나타났으며 진로장애요인 점수는 전공만족도가 높을수록 낮아지는 약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전공만족도와 유의

한 상관관계가 있는 변수는 학년( $r=-.298, p<.001$ )으로 학년이 높아질수록 전공만족도가 낮아지는 음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였다. 학점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변수는 학년으로( $r=-.264, p<.001$ ), 학년이 높아질수록 학점은 낮아지는 약한 상관관계를 보여주었다.

#### 5. 진로장애요인 및 제 변수가 진로정체감에 미치는 영향

진로정체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다중회귀 분석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진로정체감에 영향을 미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수들은 진로선택유형( $t=-2.118, p=.035$ ), 진학동기( $t=3.075, p=.002$ ), 전공만족도( $t=5.434, p<.001$ )와 진로장애요인( $t=-13.194, p<.001$ )이었으며, 제 변수들

Table 4. Correlation of general characteristics, career obstacle factors and career identity of paramedic students

	Grade	Achieving score	Satisfaction of major	Career obstacle factors	Career Identity
Achieving score	-.264 (.000)				
Major satisfaction	-.298 (.000)	.009 (.891)			
Career obstacle factors	.004 (.950)	-.018 (.787)	-.320 (.000)		
Career identity	-.160 (.014)	-.004 (.951)	.570 (.000)	-.670 (.000)	

Table 5. Influence of variables on career identity of paramedic students

Independent variable	Career identity						R <sup>2</sup>	F(p)
	B	S.E.	$\beta$	t	p			
Constant	3.358	.168		19.984	.000			
Career choice type	-.039	.018	-.099	-2.118	.035			
Motivation of university choice	.049	.016	.138	3.075	.002	.580	78.910 (.000)	
Major satisfaction	.213	.039	.257	5.434	.000			
Career obstacle factors	-.584	.044	-.584	-13.194	.000			

이 진로정체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설명력은 58.0%( $R^2 = .580$ )였다.

#### IV. 고 찰

본 연구는 응급구조학과 학생이 생각하는 진로 선택유형에 따른 진로장애요인과 진로정체감을 알아보고 진로장애요인과 진로정체감과의 상관관계에 대하여 알아보는 서술적 연구이다.

연구 결과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진로장애요인은 성별, 진학동기, 전공만족도, 희망진로, 건강상태와 대인관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진로장애요인은 전공에 대하여 불만족하거나 보통이라고 답할수록 장애요인이 많다고 하였는데 이는 전공에 대하여 만족감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에 응급구조사에 대하여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되고 이에 따라 졸업 후의 진로에 대하여도 부정적 이미지를 갖는다. 또한 성별과 건강상태에서 성별로는 여성이, 건강상태에서는 건강이 좋지 않을수록 진로장애요인이 많다고 여겼는데 이는 응급구조사의 업무가 환자를 대하여 좋은 체력조건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여 남성 또는 건강이 좋은 사람에 비해 업무의 효율성이 저하된다는 생각이 진로장애로 나타난 것이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진로정체감은 학년, 진학동기, 학점, 전공만족도, 임상실습경험과 희망진로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진로정체감은 학년이 낮을수록, 임상실습을 경험하지 않을수록 높게 나타났다. 이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3, 17]에서는 학년이 높거나 나이가 많을수록 진로정체감이 증가하는 것과 보건계열 학생의 실습 전후 비교 시 진로정체감이 증가한 것[18]과는 반대되는 결과로 나타났으나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19]에서는 입학 시 만족도가 높았던 학생이 실습을 통하여 갈등과 실망을 겪으

며 진로정체감이 낮아지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하여 본 연구 결과와 일치하였다. 이것은 진학동기 상 성적이나 부모님의 권유, 취업률 때문에 학과를 선택하게 된 학생들이 응급구조사에 대한 막연한 이미지만 가지고 있다가 지식을 습득하고 환자를 경험하며 생명의 무게에 대한 책임감을 갖게 되면서 진로정체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유추한다.

전공만족도에 따라서도 전공에 대하여 불만족할수록 진로정체감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Jo[20]의 연구에서 전공만족도와 진로정체감에 양의 상관관계를 보여 전공만족도가 장래 진로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결과와 동일한 결과가 나타났다. 졸업 후 취업희망기관에 따라서도 진로정체감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의료기관으로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은 소방공무원이나 산업체에 취업하기를 원하는 학생보다 진로정체감이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간호학과에서 조기퇴직과 높은 이직률의 원인을 찾기 위하여 진로정체감에 대한 연구[17, 21]가 시작된 것으로 볼 때, 의료기관으로 취업하여도 소방과 비교하여 직업이 안정화되지 않는 현실을 반영하여 학생들이 이직을 고려하는 것이다. 그러나 산업체에 대한 진로정체감이 증가하였다는 점은 응급구조학과 학생의 전통적인 진로인 소방과 병원과 더불어 산업체로 취직을 희망하는 학생이 증가하였고 긍정적으로 여기고 있다는 점에서 취업 후 다양한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어 매우 고무적이다.

응급구조학과 학생들의 진로선택유형을 분석한 결과, 진로장애요인은 불안정적 진로선택유형의 학생이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러 원인으로 본인이 원하던 진로와 다르게 응급구조학과로 진학하게 되었으나 학업의 과중함과 생명의 무게에 대한 부담감 등 학과 자체가 가지게 되는 어려움 때문이거나 본인이 가지고 있던 꿈을 포기하지 못한 것으로 생각될 수 있다. 이들



은 전공에 대한 부적응으로 이어질 수 있어 취업과 진로에 대한 고민을 지속하거나 취업 이후에도 직업 만족도가 낮아지게 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그러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전공적응도가 높은 학생을 선발하도록 대학 차원에서 학과의 학문적 특성에 부합하는 적격자를 선발할 수 있도록 대입전형을 개발하여야 한다는 Kim[22]의 주장을 뒷받침한다.

진로정체감은 안정적 진로선택유형의 학생들에게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Nam과 Ha[2]와 Kim[12]의 연구에서 안정적 진로선택유형이 높은 진로정체감을 갖는다는 결과와 일치하여 응급구조사를 생각하고 진학을 한 학생들이 학과의 만족도도 높으며 자신의 가질 수 있는 미래 직업에 대하여 자부심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반대로 이외의 진로선택유형의 학생들에게서는 상대적으로 진로정체감이 낮게 나타났는데 이들을 대상으로 진로지도나 멘토링 제도를 통하여 진로를 잘 결정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 한다.

진로장애요인은 전공만족도와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는데 이는 학교생활을 통하여 전공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면 진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줄어들 것이다. 진로정체감은 저학년일수록, 전공만족도가 높을수록, 진로장애요인 점수가 낮을수록 높아지는 상관관계가 있었다. 이것은 20세 이하 연령에서 진로정체감이 가장 높은 Choi[19]의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었으며 전공만족도가 높을수록 진로정체감이 높다는 Jo[20]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하였다. 이는 교육과정을 경험함에 따라 진로정체감에 혼돈을 경험하게 되지만 전공만족도가 높으면 진로정체감은 높아진다.

진로정체감에 미치는 영향변수를 다중회귀분석으로 시행한 결과, 진로선택유형, 진학동기, 전공만족도와 장애요인이 유의미하게 나왔으며 제 변수들이 진로정체감에 미치는 영향은 진학동기와

전공만족도가 진로정체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설명력은 58.0%( $R^2 = .580$ )였다. 진로정체감에 많은 영향을 주는 요인 중 하나가 전공만족도인 연구들의 결과[12, 20, 23, 24]를 볼 때 전공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효율적인 학습능력 강화, 긍정적인 학과분위기 조성 등을 통하여 응급구조사에 대한 진로정체감 향상에 기여하게 될 뿐만 아니라 응급구조사로서 올바른 직업의식을 갖게 될 것이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종합해보면, 응급구조사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을 선발하여 학교생활 중에 전공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응급구조사로서 직업을 갖는데 있어서 장애가 되는 요인들을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제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진로정체감을 높일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중고등학생들의 직업탐방 프로그램 등을 통하여 대학 진학 이전에 흥미와 적성에 맞춰 진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대학의 각 학과에서 학생들을 선발할 때에 성적으로 선별하는 것이 아닌 면접이나 적성검사 등을 통하여 학과에 관심을 가지고 응급구조사가 되기를 희망하는 학생들을 선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학과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하여 교육과정, 교내 분위기, 교수와의 관계 등에 대하여 학생들의 요구도를 파악하여 보다 학생중심적인 교육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응급구조학과 학생들의 진로정체감을 확립할 수 있도록 대학 내에서도 학생이 자신의 진로와 관련된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한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통하여 진로정체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설명한 것이나 표본의 크기가 일부 대학교로 한정되어 있으므로 본 연구 결과를 일반화시키는 데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 V. 결 론

본 연구는 응급구조학과 학생의 진로선택유형과 진로장애요인, 진로정체감 간의 관계를 파악하고 진로선택유형과 진로장애요인이 진로정체감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조사결과 응급구조학과 학생은 여성, 부모의 권유, 전공만족도가 낮음, 병원 취업, 건강상태가 좋지 않거나 대인관계가 좋지 않을수록 진로에 장애를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년이 낮을수록, 적성과 흥미가 있을수록, 전공만족도가 높을수록, 임상실습경험이 없거나 소방관이나 산업체로의 취업을 희망할수록 진로정체감이 높았다.

‘안정적 진로선택’을 하는 학생은 진로정체감이 높고 ‘불안정적 진로선택’을 하는 학생은 진로장애요인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정체감과 전공만족도, 진로장애요인, 학년은 음의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진로장애요인은 전공만족도와 학년, 학점과는 음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진로정체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은 진로선택유형, 진학동기, 전공만족도와 진로장애 요인이었으며 설명력은 58.0%( $R^2=0.580$ )였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대학생활 이전의 청소년기부터 대학진학과 졸업 후 진로에 대하여 안정적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진로상담과 지도가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학년이 증가함에 따라 진로정체감을 상승시킬 수 있도록 체계적인 학년별 교육과정 개발이 필요하다.

셋째, 현장지도자의 역할을 강화하는 등 임상실습이 진로정체감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도록 실습교육과정의 제고가 필요하다.

넷째, 진로정체감을 높이고 학과의 전공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 References

1. Park SM, Choi ES, Lee GY, Kim MS. Career choice and employment preparation condition for EMT students. *Korean J Emerg Med Ser* 2011;15(1):66-78.
2. Nam AR, Ha J. Differences between four types of career choice in career identity, career indecision and student adaptation. *The Studies of Social Sciences* 2012;28(1):27-43.
3. Seong JA, Bang SY, Kim SI. The effect of nursing professionalism and career identity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in nursing students. *Holistic Health Science* 2012;2(2):29-38.
4. Park HS, Bae YJ, Jeong SY. A study on self-esteem, self-efficacy, coping methods, and the academic and job-seeking stress of nursing students. *J Korean Acad Psych Mental Health Nurs* 2002;11(4):621-31.
5. Holland JL, Holland JE. Vocational indecision ; more evidence and speculation. *J Counseling Psychology* 1977;24:404-14.
6. Kwon KN, Choi EH. Factors affecting career identity of nursing students. *J Korean Acad Pub Health Nurs* 2010;24(1):19-28.
7. Gianakos, I. Patterns of career choice and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J Vocational Behavior* 1999;54:244-58.
8. Lee KH. Differences between four types of career choice in career attitude maturity and career indecision factor. *Korea J Youth Counseling* 2003;11(1):13-21.
9. Davenport DS, Yurich JM. Multicultural

- gender issues, *J Counseling and Development* 1991;70(1):64-71.
10. Jeong EE. Mediation of college students' commitment to career and career adaptability in the relation between career barrier and college adaptation. *J Career Educational Research* 2014;27(2):1-21.
  11. Lee HJ. Gender differences in effects of social anxiety, career decision barriers, and career preparative behavior on undergraduates' career identity. *J Career Education Research* 2008;21(2):109-25.
  12. Kim NK. Patterns of career choice and career identity of students in nursing. The Graduate School Ajou University 2012, Seoul, Korea.
  13. Choi GS, Lee CH. Effects of self-esteem and adjustment to college life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paramedic students. *Korean J Emerg Med Ser* 2012;16(3):91-102.
  14. Kim EY. A study for the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Korean college students' career barrier inventory. The Graduate School of Ewha Womans University 2001, Seoul, Korea.
  15. Holland JL, Daiger DC, Power PG. *My vocational situation*. Palo Alto: Consulting Psychologists Press, 1980.
  16. Kim BW. Career decision level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the college student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1997, Seoul, Korea.
  17. Kwon YH. Effects of ready planned self-growth program through MBTI on interpersonal relationships and career identity of nursing college students. The Graduate School of Keimyung University 2002, Seoul, Korea.
  18. Jo YD. Analysis on the influence of integrated field work for students of the department of health and welfare to their career identity. *Korean J Social Welfare Education* 2012;19:109-29.
  19. Choi EH.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areer identity and clinical competency in nursing students. *J Korean Acad Soc Nurs Edu* 2009;15(1):15-21.
  20. Jo IY. The relationship of career identity, major satisfaction and college adaptation of nursing freshmen. *J Korea Acad-Ind Coop Soc* 2014;15(5):2937-45. <https://doi.org/10.5762/KAIS.2014.15.5.2937>
  21. Cho H, Lee GY. Self esteem and career identity of nursing students. *J Korean Pub Health Nurs* 2006;20(2):163-73.
  22. Kim DS. A study on curriculum transition from high school to college : based on the college entrance examination and college drop-outs. The Graduate School Korea University 2011, Seoul, Korea.
  23. Yang YO, Lee SO. The relations of self-esteem, major satisfaction and career identity on the nursing students. *J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2012;14(2):979-89.
  24. Jung JS, Jung MJ, Yu IY. Relations between satisfaction in major,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nd career identity of nursing students. *J Korean Acad Soc Nurs Edu* 2014;20(1):27-36. <https://doi.org/10.5977/jkasne.2014.20.1.27>